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
후원자조사 보고서



2017년 8월 31일

후원자조사 보고서

조사목적

주안복지재단은 2016년 개인후원자들의 후원정보를 토대로 1차 후원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역, 후원금액, 후원일자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후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차 후원자 설문조사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직업과 소득수준, 후원동기, 후원금 사용 영역, 증액 관련 사항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효과적인 후원자 관리를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2016년 1차 후원자 연구를 통해서는 성별과 연령, 거주 지역에 따른 후원금액의 차이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남성 평균 14,940원, 여성 평균 12,694원)일수록, 서울/경기지역(평균 15,597원/ 인천 지역 중 서구 14,491원)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60대 14,291원, 40대 13,798원, 30대 13,363원, 50대 13,002원) 후원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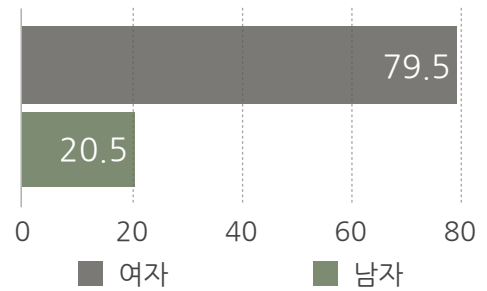
본 조사는 별도의 설문조사지를 제작하여 2016년도 송년의 밤 행사(2016.12.29.)에 참여한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약 1,600여명의 개인 정기 후원자 중 400명 정도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123부이다.

연구방법

1.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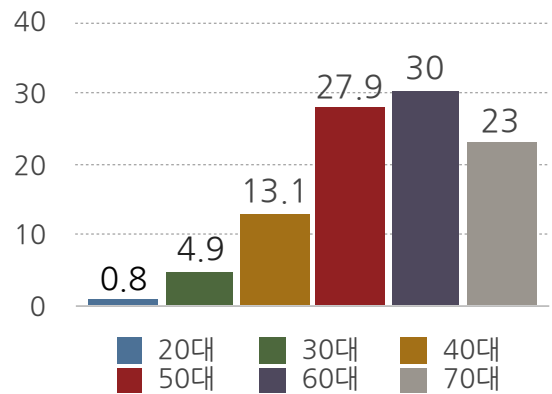
조사결과 여성이 79.5%, 남성이 20.5%로 나타났으나 이는 송년의 밤 행사의 참여한 후원자들 중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비율이므로 전체 후원을 대표하는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그림 1〉 참조).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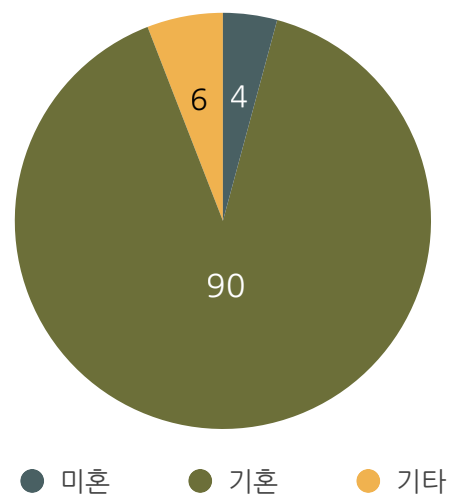
연령대는 60대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7.9%, 70대가 23.0%로 뒤를 이었다. 이는 50대 이상의 후원자 비율이 51%로 나타났던 1차 후원자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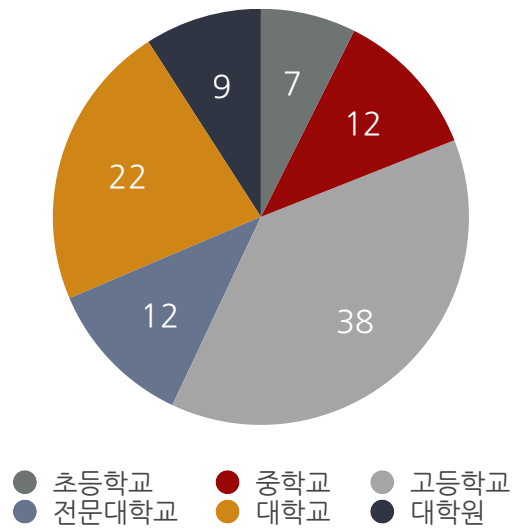
혼인상태는 기혼이 89.9%, 기타가 5.9%, 미혼이 4.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3〉참조). 이는 송년의 밤 행사에 가족단위로 참여한 후원자가 대다수였음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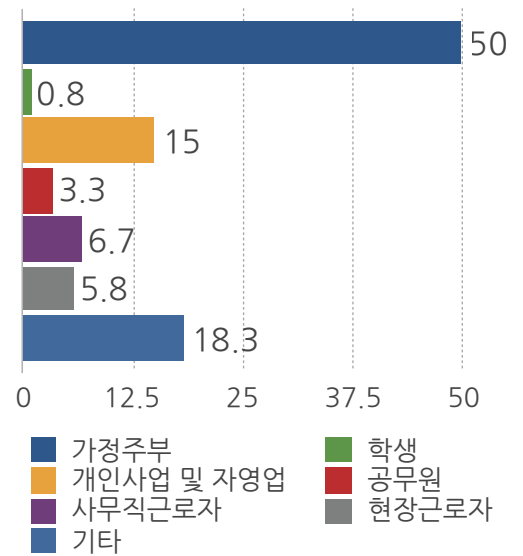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교 졸업이 22.3%, 대학원 이상이 9.1%로 나타나,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후원자가 69.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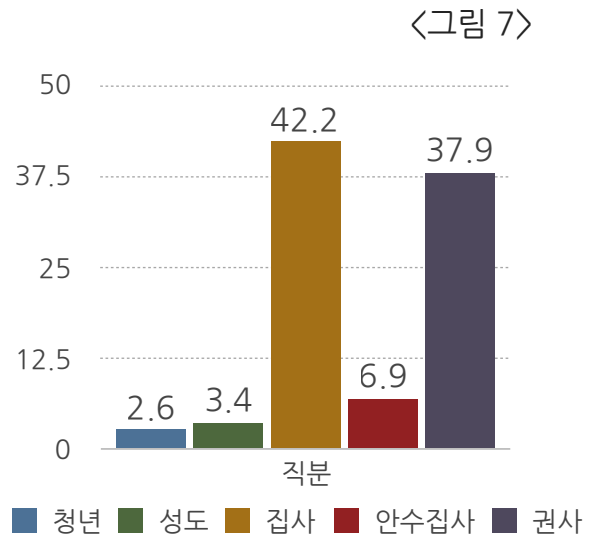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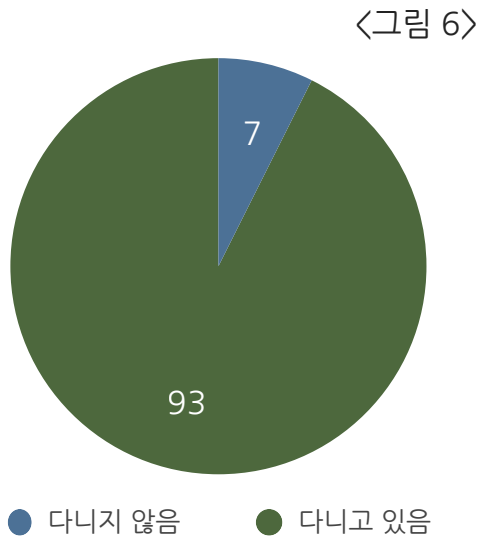
직업은 가정주부가 50%, 개인사업 및 자영업이 15%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이 역시 가족단위로 송년의 밤 행사에 참여한 후원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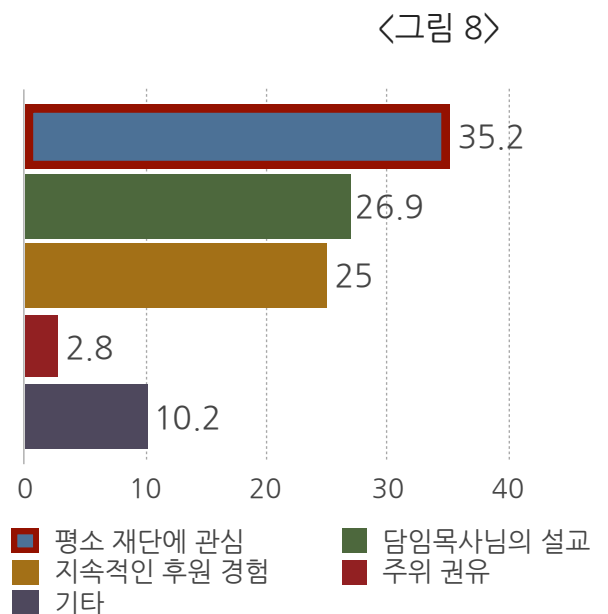
2. 주안교회 관련

설문에 참여한 후원자의 대부분(92.6%)는 주안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6>, 참조), 맡고 있는 직분으로는 집사가 42.2%, 권사가 37.9%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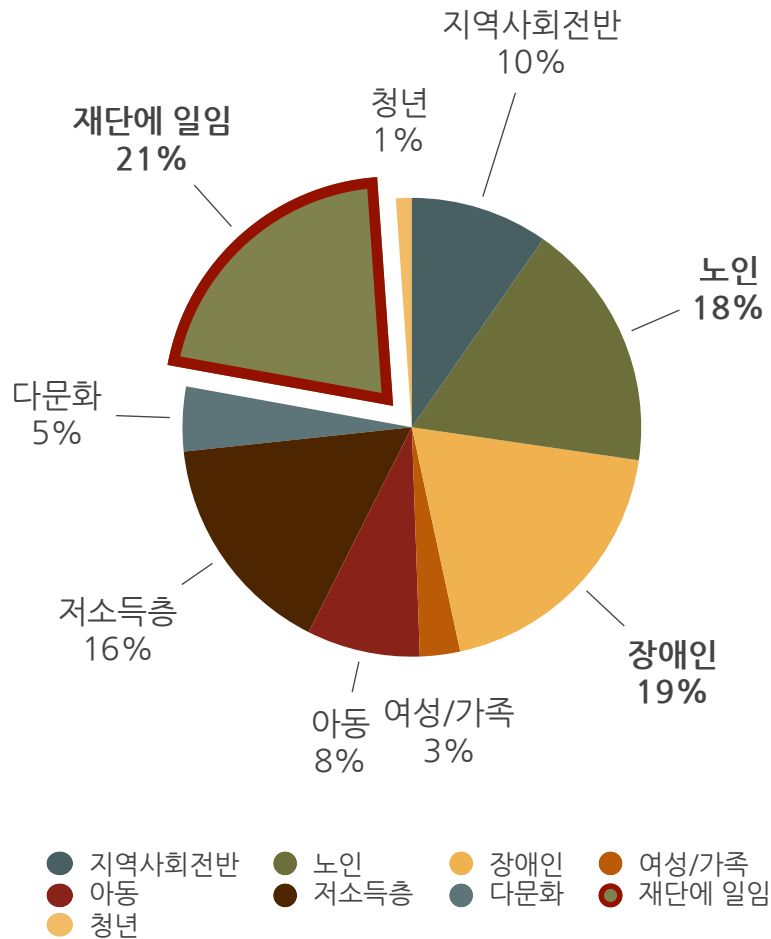
3. 후원 특성

후원자들이 주안복지재단을 후원하는 동기는 '평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5.2%), '담임목사님의 설교로 인하여'가 26.9%, '다른 기관을 후원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 25%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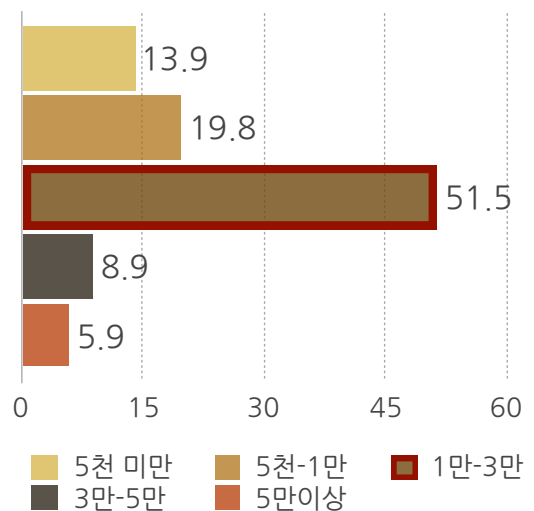
후원금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야를 묻은 질문에는 ‘주안복지재단에 일임’이 가장 높게 (20.8%) 나타났고, 장애인 분야가 19.1%, 노인이 17.4%, 저소득층이 15.7%로 뒤를 이었다(〈그림 9〉 참조).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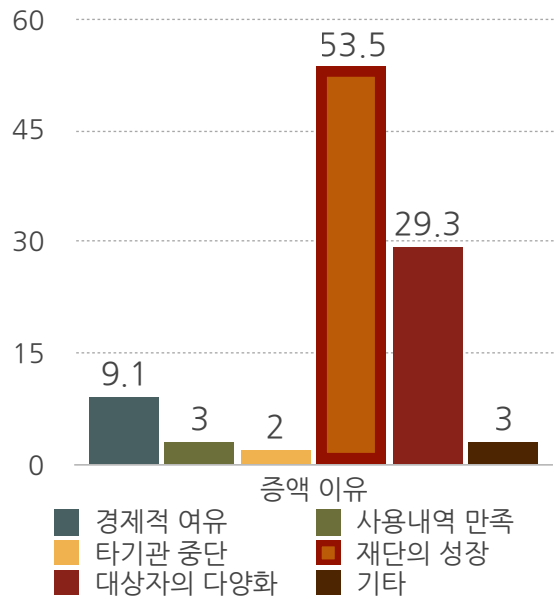
〈그림 10〉

‘향후 후원금을 증액한다면 얼마까지 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는 ‘1만원-3만원’미만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천원-1만원 미만’이 19.8%, ‘5천원 미만’이 13.9%로 뒤를 이었다(〈그림 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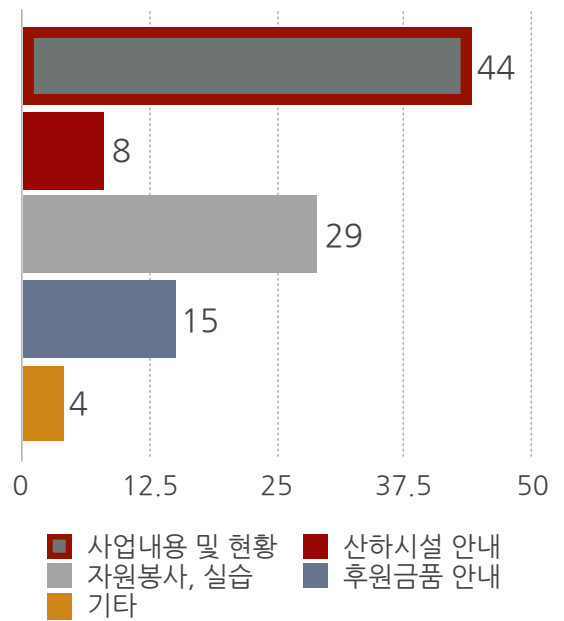
후원금을 증액하는 이유로는 ‘주안복지재단의 성장을 위함’이 가장 높게(53.5%) 나타났으며, ‘보다 다양한 분야의 대상자들을 돕기 위해’가 29.3%로 뒤를 이었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주안복지재단에 대하여 알고 싶은 점으로는 ‘사업 내용 및 진행현황’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및 실습활동’에 대해 알고 싶다고 응답한 후원자도 29%로 나타났다. ‘후원금품 후원 관련안내’도 15%로 뒤를 이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주안복지재단의 후원자들은 여성이 79.5%, 60대가 30.0%, 기혼이 89.9%, 가정주부가 50.0%로 대부분(92.6%)은 주안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집사 42.2%, 권사 37.9%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평소 주안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35.2%), 타 기관을 후원한 경험을 바탕으로(25.0%) 후원을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으며, 담임목사님의 설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26.9%)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후원금의 사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주안복지재단에 일임(20.8%)하여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주안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 후원금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 후원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언

연구의 한계점과 극복방안

본 연구는 주안복지재단 후원자들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나, 저조한 응답률로 인하여 빈도분석 이상의 분석을 시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성별, 학력, 직업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후원동기, 증액 예정금액, 후원금 사용 분야 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독립집단 평균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p>0.005$).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문 및 조사방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지난 2016년도 후원자 조사시 제언된 FGI(Focus Group Interview)와 같은 질적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후원자 특성을 반영한 기부금 모금 특성화 방안

한편 후원자들의 대부분이 기혼(89.9%)인 것에서 착안하여 ‘가족’을 한 단위(one unit)에 둔 후원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개발되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월과 같은 가족의 달에 주안교회의 가정사역국, 3040사역국 등의 교회 조직, 주안복지재단의 산하 시설인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전문 모금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나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하여 가족 단위의 후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주안복지재단의 후원자들은 소액 정기 후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1,600여명의 소액 정기 후원자는 후원자의 다양성과 건강성, 지속성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지만, 한편으로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후원자들을 위한 후원자 개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고액 후원자들을 개발하고, 이들을 조직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와 같은 고액 후원자 클럽을 기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리더들과 함께 사회를 변혁하는 주안복지재단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후원자 관리 개선 방안

첫째, 2017년 연말에 2015년과 같이 ‘사랑나눔보고’ 예배를 준비하여서 성도들에게 주안복지재단의 다양한 사역과 발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들을 주안복지재단의 후원자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주안복지재단의 이사장이며, 주안교회의 담임목사인 주승중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며, 잠재적 후원자들인 성도들에게 주안복지재단을 후원하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교회의 심방과 같이 후원자와 감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하우가 개발되어야 하며, 직원들 개인을 후원자들이 잘 안다는 느낌이 들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공개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둘째, 후원자의 연령대에 맞는 후원자(이용자) 중심의 관리, 감정적 연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주안복지재단의 후원자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혜택으로는 정기후원 등록 감사 문자, 분기별 소식지, 월 정기 이체 시 감사 문자, 송년의 밤 초청, 연간보고서, 연하장 등이 있다. 앞으로는 연간보고 및 차기년도 예상보고, 선물증정 등 감사인사의 형태를 보다 다양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응답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후원금 사용분야인 장애인과 노인분야는 2017년 개소한 장미공방과 설립 예정인 장애인주간보호 2호를 통해, 또한 노인전문도서관 애녹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더욱 더 많은 후원금 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주안복지재단의 후원금이 현재보다 더 많이 모금될 경우, 주안복지재단의 주요한 사업 가운데 ‘후원금 배분’의 기능이 추가되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후원금의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원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후원금의 증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각이 실제로 후원금의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후원금이 사용되는 사업의 내용과 진행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실습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나 이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분야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